



멘토(Mentor)를 만나라

한 사냥꾼이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잡지 못한 채 허탕만 치면서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숲을 빠져나오던 중에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사냥꾼은 생각했다. "웬 횡재(橫財)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는 걸!"

그런데 그 때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입에 먹이를 물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냥꾼을 아연실색(嗟然失色)하게 만들었다. 호랑이가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먹이를 멧돼지 앞에 밀어주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보고 낫이 빠진 사냥꾼은 멧돼지를 죽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곰곰히 다시 그 자리에 가보았다. 사냥꾼은 호랑이가 먹이를 가져다주며 멧돼지를 돌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다시 목격했다.

자연은 스스로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왜 이렇게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냥을 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가? 우주의 섭리는 늘 필요하면 다 주는데, 그는 자기 사냥감이 될 뻔했던 멧돼지를 본보기로 삼았다. 그날부터 사냥꾼은 숲 어귀에 앉아 있었다. 여러 날이 그냥 지나갔다. 식량이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점점 배가 고파졌지만, 그냥 기다렸다.

우주의 섭리가 멧돼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 아위어 갔고, 거의 굶어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고,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라 다가왔다. 호랑이가 먹이를 물어다 주던 그 멧돼지였다. 그러나 그 멧돼지는 사냥꾼을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

그러자 사냥꾼은 생각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호랑이가 멧돼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나에게도 먹이를 물어다 줄 줄 알았는데 먹이는커녕 저 멧돼지마저 그냥 지나쳐 가버리니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을 봤나. 사냥꾼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왜 하필이면 앉고 있는 멧돼지를 따라 한 것인가? 하려면 호랑이가 했던 것을 따라 해야지.'

어떤 사람의 가르침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런 사람이 멘토(Mentor)인 것이다.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길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

을 받는 인품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mentor)로 삼아서 배우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훌륭한 멘토를 통하여 오랜 기간을 배워야 하는 귀중한 지혜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

멘토(mentor)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가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려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당시 가장 학식과 인덕이 뛰어났던 멘토에게 보살피 달라고 말했는데,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 올 때까지 텔레마코스의 친구, 선생님,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까지 되어 그를 잘 돌봐 주었다. 그 후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신이 바라는 본보기를 고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나약하고 병적이며 요행(僥倖)을 바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베풀고, 도전하고, 적극적이며,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는 것을 모델(role model)로 삼아야 한다.

자기 아들, 딸처럼, 제자처럼, 친구처럼 돌봐주는 사람, 때로는 내가 꿈꾸었던 것 그 이상의 꿈을 이루도록 챙겨주고 지원해주는 사람, 진정성이 있고, 사랑으로 가슴이 따뜻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너그럽고 부드럽지만 굳은 신념이 있으며, 당신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운동의 종류도 많다. 노화는 혈액순환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진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더욱더 따뜻한 허리유지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걸을 때는 발바닥 뒤꿈치 안쪽이 가장 먼저 닿도록 걸으며 무릎은 완전히 편 상태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좋다. 매일매일 이삼십 분의 요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자.

누워서 복식호흡(사바사나)

효능: 비만 해소, 복부다이어트에 효과적, 스트레스 해소.
동작①: 누워서 양팔을 엉덩이 옆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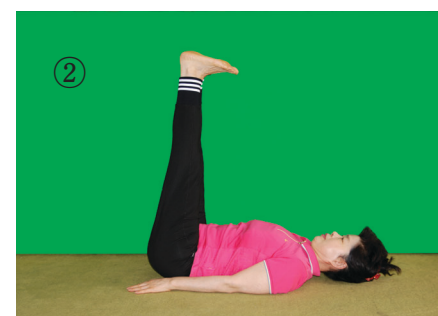
두고 복식호흡을 수련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크게 부풀리고 호흡을 내릴 때 배꼽이 등에 닿는 느낌으로 수축시킨다. 들이마시는 숨 5초, 내쉬는 숨 8초, 10회 반복.

누워서 다리 90도 자세

효능: 하지 부종을 완화하고 하체의 탄력을 강화.
동작②: 숨을 들이마시며 두 다리를 90도로 들어올린다. 10초 유지, 3회.

쟁기자세

효능: 도립의 효과와 위하수를 예방, 위장 내 가스로 인한 복통에도 효과적, 스트레스 해소와 소화방지에 효과적.
동작③: 누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



며 다리를 높게 올리고 호흡을 내쉬며 양발을 머리위로 넘긴다.
주의: 동작이 어려운 경우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수련한다. 10초 유지, 3회.

효능: 굽은 등을 바로잡고, 가슴을 확장시키며, 허리와 척추의 후궁자세를 통하여 허리를 강화하고 유연성을 증대, 협업 효과, 하체 강화 등.



故大制不割

고대제불할

도덕경 28장 해설

도인의 삶은 자신 안의 충만한 여러 가지 순수 내면 의식이 되는 선, 사랑, 만족, 감사, 포용, 준법과 같은 아름답고 선한 내향적 성향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법인은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사치와 허영, 돈, 지위, 권력, 명예, 권모술수를 더욱 소중히 여긴다. 이들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데, 그 하나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과 생명의 확장을 가져오고, 다른 하나는 교만과 허세로 인한 인간 수명의 단명과 지구적 재앙을 가져온다.

도인의 삶은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 법인의 삶은 위선과 허세로 추하고 더러운 도덕과 강도와 같은 파렴치함으로 넘쳐나는 감옥과 같은 세상으로 타락시킨다. 오늘날 현 세대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역겨운 세상을 연출해 내는 것은 도인들로 충만한 세상이 아니고, 무도한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외향적 삶에 가치와 의미를 더 두는 현 세상을 하루 빨리 인간 본연의 참 성품이 되는 순수 내면 의식의 고향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의 본보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말이다. 그래야만 다가올 미래가 장밋빛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파괴와 멸망의 비참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은 볼 보듯 환한 일이다. 만약 무도한 인간 세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사람 위에 돈과 법이 군림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존엄의 가치가 단절되는 억울하고 비참한 세상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하여 왜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참 성품(순수본성)을 밝히고 찾아내어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다.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지기웅 수기자 위천하계): 그 남성스러움(외향적 성향, 능동성)을 알고, 그 여성스러움(내성적 성향, 수동성)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될 것이다.

인간의 남성적 성향을 알고 여성적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 천하를 포용할 수 있는 우주의 어머니가 된다.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위천하계 상덕불리 복귀어영아): 천하의 계곡이 되면, 항상 덕이 떠날 수 없어 어린 아이로 되돌아갈 것이다.

천하를 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항상 덕이 떠나지 아니 하고,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게 된다.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그 밝음(근본도리, 정의)을 알고, 그 어둠(삿됨, 불의)을 수호하면 천하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된다.

인간이 근본도리를 알게 되고, 그 반대되는 삿됨도 알게 되면 천하의 법도

를 따라 행할 줄 알게 된다.

爲天下式 常德不忒 復歸於無極(위천하식 상덕불퇴 복귀무극): 천하의 법도에 따르면 항상 덕이 변치 않아 무극(이상세계)으로 되돌아간다.

천하의 법도에 따라 살게 되면 항상 변치 않는 덕 가운데 극과 극으로 치닫는 삶을 살지 않고 무극으로, 대립 마찰 충돌이 없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그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순수본성)을 유지하고 산

다는 그 영화로움을 알고, 극과 극(예: 삶과 죽음, 행복과 고통)이 존재하는 상대적 세계에서의 욕됨을 지켜내면 천하의 절대본체(영원한 생명체와 평화의 주체)로 살게 되는 것이다.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귀어박): 천하의 계곡이 되면 항상 덕으로 충만한다. 이것을 나무로 치면 통나무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천하의 계곡과 같은 삶을 살면 항상 덕으로 충만하며, 마치 나무의 그릇이 본래 통나무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이 절대본체로 되돌아가게 된다.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박산즉위기 성인용지 즉위관장): 통나무가 나뉘어져 그릇이 된즉, 성인이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활용하여 천하의 으뜸으로 삼는다.

통나무가 나뉘어져 여러 가지 나무 그릇으로 쓰임 바 되듯, 성인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천하의 으뜸으로 삼는다.

故大制不割(고대제불할): 고로 큰 다스림은 따로 나뉘지 않는다.

고로 큰 다스림은 천하의 계곡(순수본성)과 같은 삶으로 법도에 맞게 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 나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 분께 감사드립니다

허만욱 승사 칼럼

신천신지(新天新地)의 새 학문이 나왔다

이 세상엔 참 종교도 없고, 참 학문도 없다. 모두가 죽음을 전제로 한 종교이고, 죽음의 테두리 안에서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진리란 본래 영원 불변함을 뜻한다. 따라서 임시변통으로 급조된 가설은 진리가 아니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구축하여 온 학문은 모두가 가설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참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그 동안 잘못 배운 부분을 과감히 수정하고 새 시대의 새 학문을 조속히 취득해야 하겠다. 그 이유는 그간 장

“인간의 조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인간은 물론 만물이 모두 신이다. 따라서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모두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므로 고차원의 이긴자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적었다. 그래서 이긴자께서 5대공약을 선포하시게 되었고, 그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자신의 권세와 권능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셨다.

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진리의 본질을 구현한 자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영원한 신의 세계를 체득한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 10월 15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이긴자가 출현하셨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말고도 새로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피의 씨름에 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죽을 마음 먹으면 죽을 피로 변하고, 안 죽을 마음을 먹으면 죽지 않는 피로 변한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절대 죽을 수 없다” “앞으로 구세주의 열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간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므로 그 빛을 받으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 등등 이긴자의 생명의 말씀만이 참 학문이요 참 종교가 될 수 있다. 죽음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이야말로 진리의 본체인 것이다.*

이 분이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31)652-6438
이죽제단 : (031)672-6786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51)91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총주제단 : 010-9980-5805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울산제단 : (052)291-1849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33-7866
포항제단 : (054)292-5455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광주제단 : (062)524-4555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금야제단 : (063)853-6673

橫濱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